

방산시장, 제대로 알고 찾아가자!

제과 관련 재료 · 포장 · 기계업체 총집결

청계 5가와 을지로 4가 사이에 위치한 '방산시장'은 벽지, 바닥재 등의 자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과인들 사이에서는 각종 제과제빵 용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기로 더 유명한 곳이다. 제과와 관련한 재료, 포장, 기계 등 각 분야의 점포들은 대부분 청계 5가 도로쪽으로 위치해 있으며, 골목마다 작고 오래된 점포들이 촘촘하게 위치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방산시장에 대한 정보를 확실하게 체크한 후 본격적으로 찾아가 보자.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들이 매출 향상을 위한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취재 · 허윤정 / 사진 · 박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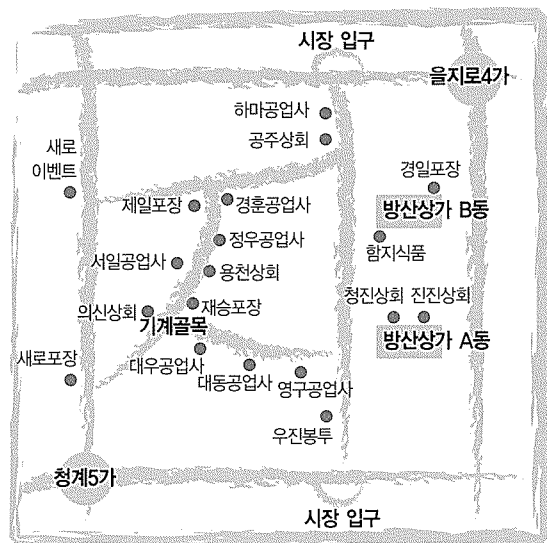
방산시장에 관한 TIPS

- **찾아가는 길** : 지하철 을지로 4구역 6번 출구(2호선)나 4번 출구(5호선)로 나와 이정표를 따라 걷다보면 각각 청계 5가와 을지로 4가에 '방산시장'이라고 써있는 입구에 다다른다.
- **영업 시간** : 점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오전 6~7시에 영업을 시작해 오후 5~6시면 문을 닫는다. 일요일은 시장 전체의 휴무일.
- **Rush Hour** : 특별히 공통적으로 바쁜 시간은 없다. 다만 점포마다 갑자기 사업상 고객과 얘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것이 변수. 따라서 오랜 시간 상담을 하고 싶다면 미리 전화를 하고 찾아가야 무작정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제과 관련 점포들은 모두 이곳에!

방산시장은 넓은 규모에 엄청난 수의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원하는 위치를 찾기가 힘든 곳이다. 그러나 다행히 제과 관련 점포들은 서로 가깝게 모여 있어 약도만 잘 숙지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다.

제과관련 점포들은 청계 5가쪽의 방산시장 입구로 들어가서 '우진 봉투'를 지나 왼쪽으로 보이는 일명 '기계골목' 양쪽으로 대부분 밀집해 있다. 이밖에도 방산상가 A동과 B동, 청계 5가 도로변 등에도 업체들이 자리하고 있어 미리 약도로 위치를 잘 확인해야 이리 저리 헤매는 일을 피할 수 있다.



제과 재료 업체

제품의 뛰어난 맛은 세심한 재료 선택으로부터 비롯된다. 방산 시장에는 수십년의 전통을 자랑하며 단골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각 점포들의 특색을 잘 파악한 후 우리집 단골 재료상을 한번 정해 보는 것도 좋을 듯.

의신상회 (대표 지배경)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만날 수 있는 제과재료상. 택배비만 부담하면 소량을 구입해도 지방까지 택배가 가능하다. 1Kg당 3,000~20,000원까지 건포도, 호두 등 다양한 건과류의 판매가 높다고 별도로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어 자세한 정보 검색이 가능하다.

- 문의 : 02-2265-1398
- 홈페이지 www.yescall.com/uesin

진진상사 (대표 노재숙)



건과류, 각종 과일 통조림, 향료 등을 취급하는 제과재료상. 소량 판매보다는 자영제과점과 중간 도매상들을 상대로 한 대량 판매를 위주로 한다. 방산시장 내 재료상 중 규모가 가장 큰 곳.

- 문의 : 02-2265-6529

용천상회 (대표 박영선)



제과에 쓰이는 각종 향료와 색소, 초콜릿을 판매하는 제과재료상. 도·소매가 모두 이뤄지는 곳이다. 이곳은 방산시장에서 유일하게 깨질뺑용 소형 믹스류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이다.

- 문의 : 02-2272-5047

창진상회 (대표 장명식)



가정용, 업소용 제과재료를 폭넓게 취급하는 제과재료상. 홈베이킹용 수입 재료의 종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특히 초콜릿류의 매출이 높았다고.

- 문의 : 02-2268-6009

공주상회 (대표 이상현)



건과류만을 다루는 제과재료상. 입구에서부터 고소한 냄새가 가득하다. 땅콩, 호두, 아몬드 등의 건과류와 건자두, 꿀대추 등의 건과류를 취급한다. 최근 전통차와 한과류에 쓰이는 건과제품의 판매비중이 늘어나는 추세.

- 문의 : 02-2265-0449

함지식품 (대표 강종호)



제과재료 및 피자재료, 각종 양식용 재료 등을 총체적으로 취급하는 곳. 도·소매는 물론 식품 원료의 수출입도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어 제품 구매가 편리하다.

- 문의 : 02-2266-3251
- 홈페이지 www.hamji98.com

제과 포장 업체

요즘 같은 '비주얼(Visual) 시대'에는 제품의 포장도 매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산시장 곳곳에 위치한 점포에 가면 모든 종류의 포장용품을 만나볼 수 있다. 여러 가지 포장재료들을 이용해 제품의 첫 이미지를 근사하게 장식해 보는 것은 어떨까.

재승포장 (대표 염동원)



제과 포장자재와 각종 포장용 봉투를 다루는 곳. 여러 종류의 제과용 비닐과 팩키지 박스, 케이크 상자 등이 있다. 기성제품보다는 주로 맞춤형 제품의 판매 비중이 높으며, 직접 디자인한 팩키지 제작도 한다. 특히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을 직접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이곳의 장점.

■ 문의 : 02-2266-1617

제일포장 (대표 정충근)



제과용 쇼핑백이 크기별로 갖춰져 있는 곳. 인쇄와 가공 등 쇼핑백 제작공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준다. 제과점에서 쓰이는 와이드칼라와 스티커, 머핀용 컵, 리본 등 '포장'과 관련된 모든 것을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 02-2277-48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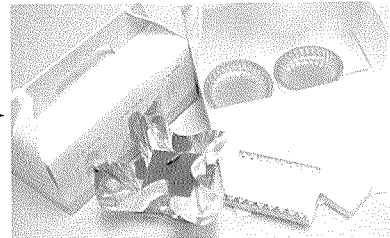
새로이벤트 (대표 이재홍)



'새로포장'과 같은 업체로 이벤트용 품목과 파티용품만을 취급하는 곳. 최근 이벤트와 파티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과점에서도 따로 매대를 설치해 판매를 개시한 곳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현재 제과점에서 판매용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품목은 어린이용 고깔모자라고.

■ 문의 : 02-2263-4361

경일포장 (대표 배재호)



방산시장내 규모가 가장 큰 포장 전문업체. 각종 제과용 포장지와 케이크 박스, 쇼핑백, 스티커 등 모든 종류의 포장제품을 만날 수 있다. 신제품이 자주 출시되며 판매 비중 또한 높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포장제품은 앞이 트인 무스용 박스로 제품을 넣고 꺼내기에 편리하게 제작됐다.

■ 문의 : 02-2273-4724

새로포장 (대표 이재근)



각종 제과용 포장제품을 만날 수 있는 곳. '삼성포장'이었던 상호명이 최근 '새로포장'으로 바뀌었다. 이곳에서는 빵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OPP 봉투의 판매비중이 높은 편. 제과용 리본 등을 수입 판매 하기도 하며, 소형 쿠키를 담을 때 사용하는 박스는 이번에 새로 출시한 신상품.

■ 문의 : 02-2274-1431

우진봉투 (대표 오승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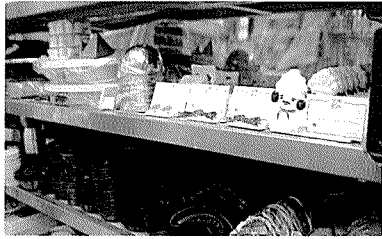
제과봉투 맞춤 전문점. 제품을 싸는 종이, 비닐 봉투와 호두과자용 봉투 등을 제작한다. 봉투와 쇼핑백을 원하는 크기, 모양, 색으로 맞춤 제작할 수 있다.

■ 문의 : 02-2264-4387

제과 도구 기계 업체

제과도구와 기계상들은 '기계골목'에 가면 거의 만나볼 수 있다. 모두 비슷비슷한 제품을 다루는 듯 해도 각각 점포마다 주력상품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찾아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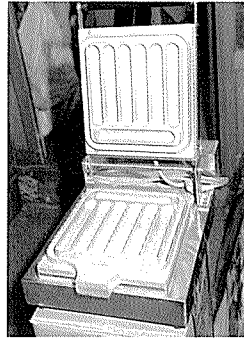
영구공업사 (대표 임영구)



팬과 타르트를 등 제과용 도구 일절을 취급하는 곳. 이번에 도기로 만든 가격표를 처음 출시했다. 기존에 플라스틱과 철재로만 만들었던 가격표를 도기로 만들어 점포 분위기를 한결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게 했다.

■ 문의 : 02-2273-5987

경훈공업사 (대표 이종하)



제과기계 전문업체. 직접 기계를 개발, 생산하는 곳이다. 카페에서 쓰이는 소형 도구와 기계류도 판매한다. 또한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덤섬과 떡 케이크용 찜통도 취급하고 있다. 업소용 외플 기계와 치즈스틱 제조기계도 이곳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문의 : 02-2275-5902

대풍공업사 (대표 지종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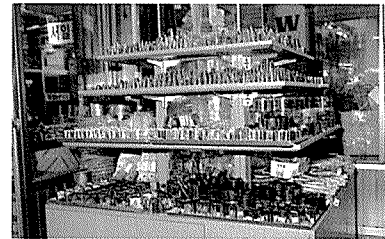


빵, 과자들, 주문식 빵 케이스부터 믹싱볼까지 각종 제과도구를 취급하는 기계·도구상. 약과와 각종 떡들을 비롯해 떡과 관련된 도구도 판매한다. 특히 이곳은 미국 윌트사에서 수입한 제과도구를 판매하고 있다. 인형모양의 팬과 장난감 모양의 장식물, 입체적인 나뭇잎 모양 과자틀까지 다양한 종류를 자랑한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다.

■ 문의 : 02-2269-8066

■ 홈페이지 : www.dpcorp.co.kr

서일공업사 (대표 윤병섭)



피자팬, 오븐 등 피자 관련 기구와 가스·전기오븐, 믹서 등 제과제빵기구와 기계를 다루는 곳. 최근 카페 등에서 쿠키나 냉동 페이스트리를 구울 때 사용하는 소형 오븐을 출시했다. 직접 수입한 기구들 외에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제작한 기계들도 취급하고 있다.

■ 문의 : 02-2267-0871

대우공업사 (대표 정용체)



쇼케이스, 오븐, 믹서기, 빙수기에 이르는 제과기계부터 온갖 모양의 팬과 기타 제과용 도구를 판매하는 곳. 유럽형 제과도구들을 국내에 접목시킨 제품이 많다. 이곳에 가면 밀전병 제조기계도 구입할 수 있다.

■ 문의 : 02-2267-2843

■ 홈페이지 : www.bakeryeng.co.kr

하마공업사 (대표 김종훈)



작년 11월에 오픈한 제과기계전문업체. 현재는 믹서기, 발효실, 오븐 등 기본적인 제과기계와 도구들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신제품 개발에 더욱 주력할 계획. 하마의 큰 입으로 고객들의 수고를 모두 '먹겠다'는 의미의 상호명이 흥미롭다.

■ 문의 : 02-2275-5887

